

“주식·암호화폐 못 믿어”... 외화 금융상품에 돈 몰린다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상승
주식·코인시장 연일 하락세
달러 강세 흐름에 환차익 노려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외화 금융상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달러강세로 환테크(환율+재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1297.30원을 기록했다. 증가 기준으로는 2009년 7월 13일(1315원)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1300원대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24일 1200원 이후 이날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7.5%나 상승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 긴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면서 외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투이미지

1.75%까지 올리면서 국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에서는 코스피가 2360, 코스닥이 750까지 추락했고 암호화폐시장에서는 1비트코인 가격 2만달러가 붕괴됐다.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으로 이동하고 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외화 금융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한 달 새 33억달러(약 6%) 가까이 늘어난 569억 달러로 집계됐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외화 예금 통장 ▲달러ETF(상장지수펀드) ▲달러RP(환매조건부채권) 등이 있다.

외화 예금통장은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사서 환율이 높을 때 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환차익은 비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달러 상장지수펀드(ETF)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2월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내 상장된 6개 달러 ETF(인버스 제외) 평균 수익률은 9.35%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OSPI 미국달러선물 7.6% ▲KOSPI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15.0% ▲KODEX 미국달러선물 7.7%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15.1% ▲KBSTAR KRX 300미국달러선물혼합 -4.0% ▲TIGER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14.7%다.

달러RP는 증권사 달러 예금이다. 고

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미국채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되돌려주는 형식이다. 은행 달러 예금보다 이자율이 더 높지만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달러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 많이 오른 만큼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월 이후 달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외화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었다”며 “외화 예금통장보다는 달러ETF를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규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반기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완만한 속도로 내려올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하락 시 손실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환테크 전략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퍼펙트스톱 경고... 혁신 막는 규제 철폐”

(총체적 복합위기)

이복현 금감원장
“전 세계 가치사슬 상·하류서 얽혀”
금감원 리스크 관리 계획 제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퍼펙트스톱(총체적 복합위기)이 밀려올 수 있다”며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오일쇼크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한다”며 “전 세계 가치사슬이 상·하류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증유의 ‘퍼펙트스톱’이 닥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리스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금융 전문가들을 모시고 금감원의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감독원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차문중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박래정 LG경영연구원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리스크 관리 계획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 ▲ 금융시스템 복원력 제고 ▲ 금융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지원 등이다.

먼저 “건전성비율 규제 등 다양한 감

독수단을 적극 활용해 금융사의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금리·환율 급등으로 인한 단기자금시장·회사채시장의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사의 유동성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높은 금융사는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충해 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외환 수급 여건 악화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리인상 충격으로 금융회사의 신용손실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 복원력 제고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이상징후 조기포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신한銀, 越 진출 지원 ‘지평’과 업무협약

국내의 기업의 베트남 진출 자문

신한은행은 아세안지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법무법인 지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3년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진출한 후로 2009년 신한베트남은행을 출범했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43개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계은행 1위로 자리잡았다.

법무법인 지평은 2007년 호치민시 사무소를 설립한 후로 하노이 사무소까지 운영을 확대하며 국내의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자문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과 법무법인

지평은 신한베트남은행과 거래를 희망하는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투자 상담부터 현지 금융 지원까지 체계적인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 베트남 투자 고객 유치 ▲ 베트남 진출 상담 ▲ 현지 행정 업무 ▲ 외국인 신고 ▲ 현지 금융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베트남 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확대를 돕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법무법인 지평은 베트남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축적한 베테랑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진출 기업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IBK창공’, 혁신 창업기업 81곳 수료

IBK기업은행, 통합 네트워킹 행사

IBK기업은행은 혁신 창업기업 81개사가 2022년 상반기 IBK창공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센터별로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IBK창공 졸업기업 관리 프로그램인 ‘POST창공’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육성기간 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수료식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그동안 열리지 못한 네트워킹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부산 창공’은 6기 기업의 수료식을 위해 1~5기 선배기수가 참여해 전체 기수가 함께하는 대규모 통합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네트워킹 행사에서는 선배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등 상호 교류의 장(場)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IBK창공’은 지난 5개월 동안 혁신 창업기업 81개사의 성장을 견인했다.

은행 내외부 전문가들의 사전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담 멘토, 전문 컨설턴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밀착형 멘토링을 지원했다.

창공을 통해 혁신창업기업들은 기업은행의 직·간접 투자, 외부투자 연계, 대출 등 530여억원의 금융서비스와 컨설팅·멘토링, IR 등 1100여건의 비금융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육성기간 동안 기업가치가 2.48배 상승했다.

현재 2022년 하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의 선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7월부터 5개월간 육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창공 운영 모델 다양화, 자금공급 확대 등 혁신창업 생태계 내 IBK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창공 졸업 이후에도 대·중견·중소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VC와의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물가상승 지속...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이승헌 한은 부총재
물가 불안, 수요·공급 요인 혼재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선제적인 통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은 이 부총재는 23일 21세기 금융비전포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국의 확장적 정책 대응과 빠른 경기회복, 글로벌 공급계약 등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물가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는 등 중앙은행의 정책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라며 “글로벌 공급계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라 소비도 회복되면서 물가상

승압력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재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와 한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의 금융안화 기조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한은으로서 높은 물가상승률이 기대인플레이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 물가 상승세를 둔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확산 또는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물가 불안에는 수요·공급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오름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매개로 장기화될 위험도 내재됐다. 물가불안 심리를 조기에 억제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